

# 直領과 관련있는 중국의 袍制

- 예살과 직신을 중심으로 -

이 주 영\*(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권 영 숙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명칭 면에서 직령과 관련있는 중국의 포제에는 예살과 직신이 있다. 본 논문은 형제 면에서 직령(襖 [옆무]가 있는 직령)과 예살, 직신과의 관계를 비교·고찰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의복인 曳撒은 우리 나라에서 衣撒 혹은 衣撒直領으로 표기되어 이삭덕녕, 이삭옷 등으로 불리었으며, 直身은 우리 나라에서 直領으로 표기되어 덕령으로 불리었다.

2. 예살은 前後 衣身の 형제에 따라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인 예살(襖가 있는 예살)'과 '앞·뒷길이 모두 상하분리식인 예살(襖가 없는 예살)'로 분류된다. 前者는 주름이 앞길의 양옆에만 있고 襖가 있는데 반해 後者는 주름이 앞·뒷길 모두에 있고 襖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이 중 파가 있는 예살이 우리 나라의 직령과 관련 있는 의복이다.

3. 직신은 襖가 있는 직신과 襖가 없는 직신으로 분류된다. 兩者는 襖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직령교입이고 前後 衣身の 형제가 상하연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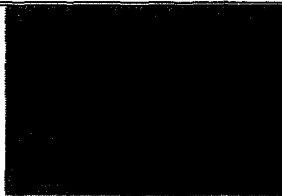


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襖가 없는 직신의 경우 소매가 길고 넓고 의신이 관할하고 긴 형태는 사인들에게 착용되었으며, 소매가 짧고 좁고 의신도 밀착되고 길이도 무릎을 지나는 정도로 간소한 형태는 서민들에게 착용되었다.

4. 직령과 예살의 형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직령과 파가 있는 예살은 전체적인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前後 衣身の 형제에 있어서 직령은 앞·뒷길이 모두 상하연결식인데 반해 파가 있는 예살은 뒷길은 상하연결식이고 앞길은 상하분리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가 없는 예살은 우리 나라의 요선철릭과 같은 형태인데 단지 치마부분의 구성에 있어서 요선철릭에는 옆트임이 있는 것이 다르다.

<표 1> 참고

5. 직령과 직신의 형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직령과 襖가 있는 직신은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다. 즉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 동시대 중국과 조선에서 공통으로 착용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직신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직령으로 불리었다. 직령과 직신은 兩者 모두 옆무의 구성에 있어서 옆무가 길 안쪽에서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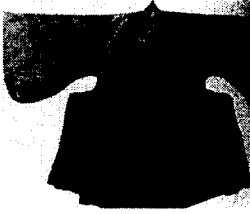



유형 고찰항목	직령	예살	
		襖가 있는 예살	襖가 없는 예살
형태			
착용용도	· 喪服(왕, 왕세자, 문무관리, 궁중하급관리) · 冠服(문무관, 하급관리, 서인·공상천예) · 平常服(왕, 왕세자, 사대부)	· 官服(내신)	· 平常服(사인)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과 옆무가 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표 2> 참조

<표 2>

유형 고찰항목	직령	직신			
		裾가 있는 직신	裾가 없는 직신		
			광수형	착수형	
형태					
착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喪服(왕, 왕세자, 문무관리, 궁중하급관리)</li> <li>· 冠服(문무관리, 하급관리, 서인·공상천예)</li> <li>· 平常服(왕, 왕세자, 사대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官服(황제, 조정관리, 내신)</li> <li>· 平常服(사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常服(은사, 문인, 유생, 사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常服(서민)</li> </ul>	